더 밝은 미래를 함께 여는 은행
동양저축은행
062-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7745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7년 5월 3일 (음력 3월 17일) 목요일

결혼! 솔직히, 집안도 봐야 하는 거 아니예요?
광주지사 228-3222 DAKS club 닥스클럽(주)

# 기아車 환율·파업에 타격

## 작년 사상 첫 1천200억원대 적자
## 지역 제조업 매출 30% 차지…파장 우려

기아자동차의 적자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광주공장은 물론 지역 경제에까지 파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아차의 경우 지난해 1천억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 증권가에서 유동성 위기설이 돌아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해명하는 등 심상치않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해 내수 26만9천575대, 수출 87만1천159대 등 114만대를 팔아 17조4천399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영업손실은 1천253억원에 달했다.

기아차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IMF 구제금융시대인 지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더욱이 올해 1·4분기 실적도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기아차 실적이 저조한 것은 환율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 노조 파업 및 판매부진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환율(952.89원)이 2005년(1천22.5원)보다 69.9원 하락하면서 광주공장만 2천96억원의 환차손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아차 전체로는 무려 8천110억원에 달한다.

광주공장 관계자는 "지난해 광주공장에서 31만2천622대를 생산, 이중 67%인 19만8천950대를 수출했다"면서 "그러나 환율하락으로 자동차 1대당 환차손이 67만7천원에 이르러, 경영압박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임단협과 관련된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실도 만만치 않았다. 지난해 광주공장의 경우 파업일수만 23일에 달해 생산차질대수 1만5천대, 손실액 2천300억원을 기록했다. 기아차 전체로는 4만8천대, 7천300억원을 넘었다.

특히 광주를 비롯, 경기도 소하리와 화성 등 기아차 3개 공장의 협력업체 피해까지 합하면 파업손실액은 1조원에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조는 2005년보다 5.7% 오른 7만8천원의 기본급 인상 외에 품질달성격려금·성과급 등을 챙겨 회사의 경영난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다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함께 16년째 계속된 파업으로 인해 스포티지 등 기아차의 내수판매가 뒷걸음질친 것도 영업전략에 치명타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광주공장의 주력차종인 스포티지의 지난해 판매대수는 내수 3만6천대, 수출 12만1천대를 합쳐 15만7천여대였다. 전년 대비 감소대수는 3천대(1.85%)에 불과했으나, 내수가 무려 37% 줄어 심각성을 더했다.

2005년 대비 지난해 기아차 전체 차종의 시장점유율은 광주 29.9%→28.4%, 전남 28.1%→27.4%, 전국 23.1%→22.5%로 감소했다.

한편 정몽구 회장은 지난달 현대차 체코공장 착공식에서 "(기아차의 유동성 위기설 등 좋지않은 소문에 대해) 보고를 들었는데, 그런 소문이 왜 도는지 모르겠으나 전혀 걱정할 게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관계자는 "광주 제조업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기아차 광주공장의 위기는 곧 광주지역경제의 위기"라며 "회사는 신제품 출시 등 경영비전을 제시하고, 노조는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을 멈춰야 지역민들이 기아차 사주기 등을 통해 무한한 애정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이명박-박근혜 내일 만난다

## 李, 강대표 체제 수용…내분 진정국면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2일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민심의 명령이며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개인사무실인 견지동 안국포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개혁과 화합을 조화하는 어려운 길을 택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3면〉

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 "무조건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앞으로의 일에 대해 대화하고 당의 화합과 국민신뢰를 얻는 데 노력하겠다"며 양자 회동을 공식 제의했다.

박 전 대표는 한선교 대변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 한나라당의 앞날과 새로운 모습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제안을 받아들였다.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은 4일 오후 당사 대표실에서 강재섭 대표와 함께 3자 회동을 갖기로 합의했다.

강 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당의 화합과 상생경선을 이끄는 방안을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유기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4·25 재보선 참패 이후 폭발된 한나라당의 내홍은 일주일만에 극적으로 수습의 길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전 시장이 당의 철저한 쇄신을 촉구하고, 측근들도 경선 룰 협상과정에서 민심과 당심의 반영비율을 5대 5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박 전 대표 측은 경선 룰 재조정은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경선 룰 협상이 양측간 또 다른 분란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홍준표 의원 등 당내 일부 중진 및 소장파 의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당은 없고 양 후보만 있는 것이 입증됐다"고 박근혜, 이명박 양측 캠프를 비난하고 나서는 등 내홍의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축산 사랑운동** '신토불이 축산사랑운동'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우리 축산물에 대한 사랑을 담은 풍선을 날리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는 2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분수대 앞 소공원에서 '축산사랑운동 발대식'과 함께 축산물 사진전, 무료시식회 등을 열었다. /위직량기자 jrwi@

# 10만원·5만원권 2009년 나온다

## 韓銀 "경제 비효율·불편 해소 위해"

2009년 상반기 중 5만원권과 10만원권 고액권이 발행된다.

한국은행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은행권의 최고 액면 금액인 1만원은 소득, 물가 등 현 경제상황에 비해 너무 낮아 경제적 비용과 국민 불편이 매우 크다"면서 고액권 발행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한은은 당분간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은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화폐단위변경과 고액권 발행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라며 "장래의 어떤 시기에 거론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가까운 장래에 화폐단위 변경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1면〉

한은은 1만원이 발행된 1973년 이후 물가는 12배 이상, 국민소득은 150배 이상 상승하는 등 경제사정이 크게 변화됐지만 은행권의 최고 액면금액 1만권은 34년 동안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화폐 대신 자기앞수표가 널리 통용돼 자기앞수표의 발행·지급·정보교환, 전산처리 및 보관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국민들도 많은 장수의 화폐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최고액권인 10만원권과 함께 우리나라 화폐체계에 맞게 5만권 발행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해 2009년 상반기 중 동시에 발행, 유통시킬 계획이다.

고액권이 발행되면 10만원 자기앞수표의 제조 및 취급비용이 연간 약 2천800억원 절감될 뿐 아니라 1만원권 수요의 상당 부분이 고액권 수요로 이동해 화폐 제조 및 운송·보관 등에 따른 관리비용이 연간 400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여수에 '동북아 오일허브' 조성

## 산자부, 460만 배럴 규모 석유저장시설 건설

여수에 460만 배럴 규모의 상업용 석유저장시설이 건설되는 등 여수 일대가 석유 생산기지와 국제 유통기지를 결합한 동북아 지역 '오일허브'로 조성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와 석유업계는 동북아 지역이 5년 내에 지금의 북미시장에 맞먹는 거대 석유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하에 여수와 울산을 중심으로 '동북아 오일허브'를 조성키로 하고, 핵심 인프라인 상업용 석유제품 저장시설 건설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1단계로 올해 안에 국내외 석유관련 기업들로 합작법인을 설립한 뒤, 여수시 낙포동에 있는 석유공사 비축기지 내 유휴부지 11만 평을 활용해 오일허브 구축을 위한 최소 물량규모인 460만 배럴 규모의 상업용 저장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외국기업과 석유공사, 국내 정유기업 등이 참가하는 상업용 저장시설 합작법인을 올해 11월까지 만든 뒤 내년 초부터 공사에 들어가 2009년 말 부터 상업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어 1단계 사업성과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될 경우 울산항에 저장시설 2천300만 배럴 규모의 2단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일허브'는 위치한 나라뿐 아니라 주변국 석유시장을 대상으로 석유제품의 생산과 공급, 입·출하와 저장, 중개, 거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석유 물류활동의 중심 거점을 뜻하며 현재 동아시아권역에서는 싱가포르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오일허브가 구축되면 항상 국내에 대규모 석유재고가 있게 되는 만큼 에너지 위기시 대응능력이 높아질 뿐 아니라 해운·물류산업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남도와 여수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산자부나 석유공사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라며 "그러나 2012 세계박람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수에 추가로 대규모 석유비축기지를 건설하는 정부사업이 박람회 유치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친일파 재산 첫 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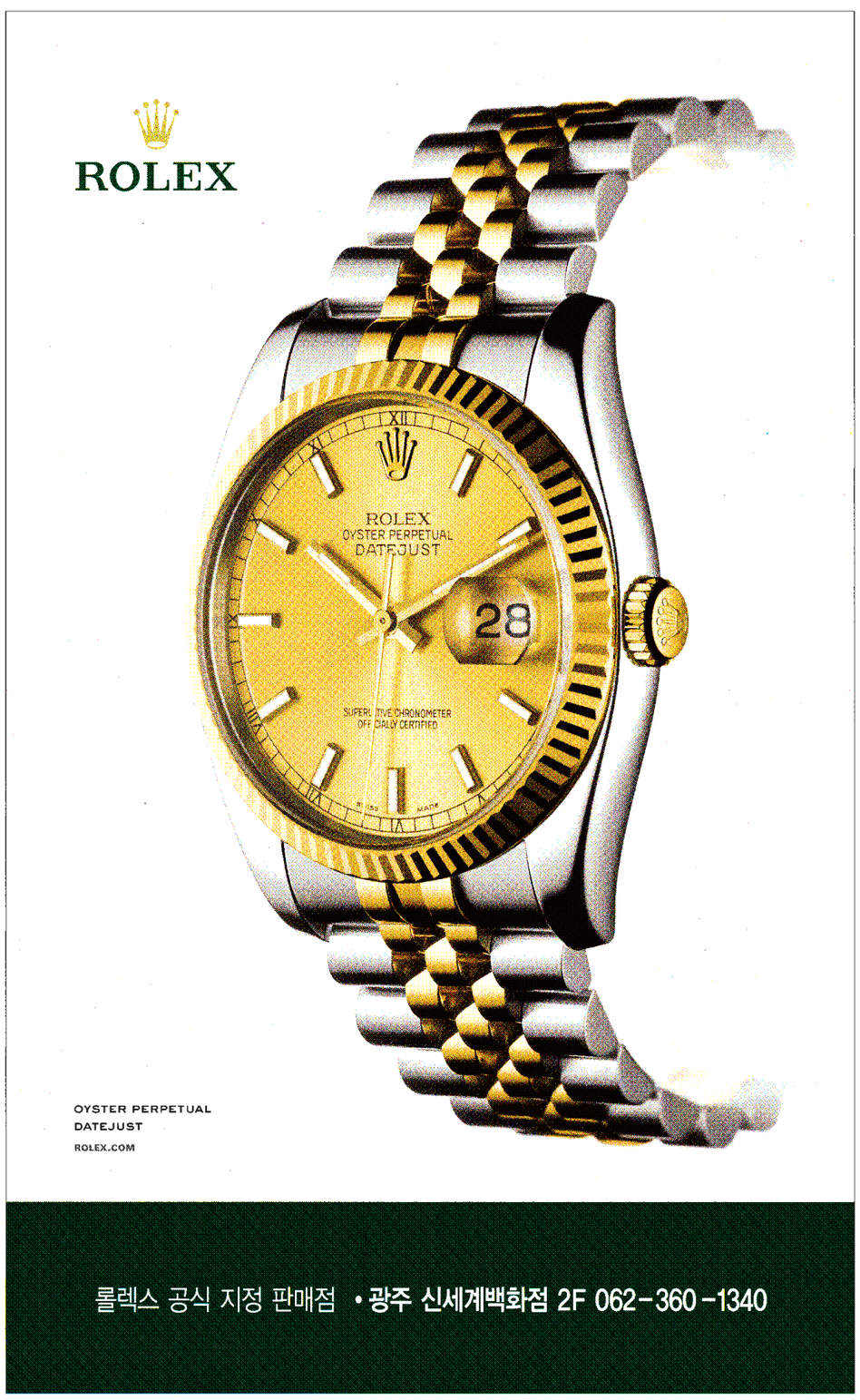
## 이완용 등 9명의 후손 토지 36억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반민족 행위자 9명의 소유 토지 154필지, 25만4천906㎡, 공시지가 36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5면〉

전원위는 이 같은 결정을 위원 9인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히며 귀속결정된 재산을 재정경제부에 통보해 '나라' 명의로 등기한 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에 우선적으로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수 대상자는 한일합병조약 당시 내각 총리대신이었던 이완용과 아들 이병길, 일진회 총재를 지냈던 송병준과 아들 송종헌을 비롯, 중추원 고문이었던 고희경, 을사조약 당시 농상공부 대신이었던 권중현과 아들 권태환, 한일합병의 공으로 남작 직위를 수작했던 이재극, 자작 수작·중추원 고문 등을 역임했던 조중응 등이다.

환수 대상이 된 친일재산은 러일전쟁 시작(1904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받은 재산 등이며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한 경우는 제외됐다. /연합뉴스

우암학원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상담홍보실 (062)970-0114 ▶T.(062)970-0001~9
세계로 앞서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상담홍보실 1588-5051 ▶T.(061) 360-5000

호남예술제 피아노 초등 본선 진출자 ▶20면